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6호 【루계 제26020호】 주제 107 (2018)년 5월 26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  
지구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부부장 조용원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목군대장  
김수길동지, 총정치  
국 조직부국장 목군  
상장 손철주동지,  
인민무력성 부상 목



제기되는 문제들을  
논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사일정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모든 대상건설에서  
천년책임, 만년보증  
의 원칙에서 설계와  
시공기준, 건설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건축물의 질을 최상  
의 수준에서 보장  
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총동원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과  
집단적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려 건설장전  
역이 화선선전, 화선

군중장 김정관동지와 원산갈마해  
안관광지구건설지휘부의 지휘관  
들, 국무위원회 설계국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오래전에 벌써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해양국의 체모에  
맞게 세계적인 해안관광도시를  
갈마반도에 꾸리실 위황한  
설계도를 무르익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군민이 힘을 합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최단기간내에 완공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당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동해의 명승지에 시대를 대표하  
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마음  
한뜻으로 총결기해나신 인민군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맹렬한 격전을 벌려 짧  
은 기간에 지대정리와 로반성토,  
하부망공사를 질적으로 끝내고  
모든 건축물들에 대한 골조공사를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명사십리해변가를 따라 각각이  
한 건축물들이 키돋움하며 솟아  
오른 건설장전경을 바라보시며  
불과 몇개월사이에 정말 많은  
일을 해제꼈다고 치하하시며  
건설자들을 고무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하루하루가 몰라보게 비약하고 전진  
하는 이 땅에서 려명신화가 창조  
되던 시기는 이제는 먼 옛일처럼

되어버렸다고 하시면서 기적에서  
더 큰 기적으로 한계를 모르고  
출발음치는 여기 원산갈마해안관광  
지구건설장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건설기적이 일어나고있다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사규모와 진척정형, 자재와  
설비보장대책 등 건설전반실태를  
료해하시고 원산갈마해안관광  
지구건설을 다그쳐 끝내는데서

선동의 북소리로 떠들썩하게 하고  
애국열, 투쟁열, 경쟁열로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설생산부문을 비롯하여 전국의  
련관단위들에서 증산투쟁, 창조투  
쟁을 힘있게 벌려 건설장에 필요  
한 설비와 자재, 마감전제품들을  
공사에 지장없이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도하시였다



1 번 에서 계속

흥분히 꾸려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뜨거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는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전제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흠 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원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세상에 하시면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 오시여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고 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정해

들도 없는 우리 식의 해안도시로 설을 명년도 래양절까지 완공할데 크 나 큰 빈 음 을 안겨 주신 주신 기일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불라는 맹세를 다지였다. 완공함으로써 위대한 당의 명도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4차 전체대회에 축하문을 보내시였다

일본 도쿄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4차 전체대회 앞

나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광명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서 열리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4차 전체대회에 즈음하여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총련 제23차 전체대회가 있는 때로부터 지난 4년간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태어나 성장한 주체조선의 존엄높은 려의공민단체로서의 본태를 뚜렷이 과시하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영광찬 로정우에 혁혁한 위훈을 아로새겨온 긍지높은 나날이였습니다.

총련은 류레없이 엄격한 정세와 환경속에서도 주체의 가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인 총련조직을 굳건히 지켜 내었으며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을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는 일심단결의 성새, 애국충정의 보루로 철옹성이 다져졌습니다.

총련결성 60돐 기념행사를 비롯한 전통포적인 정치문화축전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 려의교포운동사상과 업적을 깊이 빛내이고 5대교양을 공세적으로 벌려 일군들과 동포들을 투철한 신념과 의지의 체현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킨것은 총련이 총련기간에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입니다.

총련은 민족교육사업에 전조직적, 전통포적인 힘을 넣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충정의 바통, 애국애족의 계주봉을 이어나갈 앞날의 역군들로 훌륭히 키워

으며 재일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확대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근기있게 벌려 주체적력량을 더욱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정당한 날애나 준엄한 날애나 사회주의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며 우리 공화국을 적극 지지옹호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부강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나는 총련기간 총련이 부닥치는 온갖 예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제23차 전체대회가 내세운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어머니 조국을 변함없이 따르고 일심단결 받들어온 최종만의장동지를 비롯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주체위업의 앞길에 중대한 전환적공명이 열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된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는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전면적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는 뜻깊은 대회입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5년된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융성번영의 새 전기가 펼쳐지는 역사적단계의 요구에 맞게 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기기 위한 애국애족의 진군을 가속화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총련은 각급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제, 평등체제를 철저히 세우고 대외의 일심단결을 배방으로 강화하며 사상교양사업에 계속 선진적인 힘을 넣어 일군들과 동포들의 무궁무진한 정진력에 의거하여 승리의

물과구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합니다.

총련은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을 애국애족의 성들로 철옹성같이 다지며 특히 지부중시사상을 일관성있게 틀어쥐고 모든 기층조직들을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산조직으로, 상부상조의 미풍과 따뜻한 정이 흘러넘치는 화목한 동포동네로 꾸며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은 총련의 가장 큰 자랑이며 재일본조선인운동의 명맥을 창창하게 이어주는 만년대계의 사업입니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은 민족교육사업을 조직전결과 애국활동의 중심에 놓고 후대교육사업에 총력을 집중하며 조선대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교원진영을 강화하고 학생대렬을 끊임없이 증대시켜 민족교육의 찬란한 개화기를 활짝 열어나가야 합니다.

총련에서는 새 세대 청년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사업에 각별한 힘을 넣어 재일본조선인운동의 군중적지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며 민족문화사업과 군중체육활동을 왕성하게 벌려 조선민족의 긍지와 기개를 높이 떨쳐나가야 합니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일군들은 《동포들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자!》는 동포제일주의의 구호밑에 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봉사활동에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래의동포들의 참다운 존엄과 행복한 미래는 강대한 조국과 민족의 통일번영속에 있습니다.

총련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민족 단합사업을 통해 크게 벌려나가며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기운차게 조직전개하여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데서 중요한 임무를 담당수행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은 격변하는 정세에 상응하게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지침을 널리 선전하기 위한 대외 사업을 능동적으로 벌려나가며 일본의 진보적인사들과 인민들, 국제기구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총련사업과 재일본조선인운동에 유리한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어머니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전열히 옹호하며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투쟁있게 이바지해나감으로써 애국애족의 선각자, 애국충정의 모범, 세계레의교포조직의 본보기로서의 영예를 변함 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 운명의 피를 흘리고 애국 애족의 불변봉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총련과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나는 총련 제24차 전체대회가 재일본조선인운동사에 특기할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혼연일체를 더욱 두터이하고 모든 동포들과 자녀들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의의깊은 회합으로 빛나게 장식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대외사업에서 훌륭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주제107 (2018)년 5월 26일

평 일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 청년 조직련합 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로씨야청년조직련합대표단이 부위원장인 최희동지에게 로씨야청소년물을 드리였다.

년련합민족비사회 위원장인 그리고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드리는 배부슈코브란장이 전달하였다.

선물을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사기자

##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1차확대회의 지도》

여 러 나 라 에 서 보 도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1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1차확대회의에서는 군대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방위사업전면에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대책들이 토의결정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군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1차확대회의에서는 군대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방위사업전면에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대책들이 토의결정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군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중국의 신화통신, 로씨야의 리아노보스찌통신, 일본의 《아사히신

사정치과업수행정형에 대하여 분석을 총화하시였으며 혁명무력에 대한 당의 유일적명군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혁명적군중을 확립함에 대한 문제, 당이 밝혀온 혼연혁명방심, 사상혁명방심, 군대현대화방심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 군인생활을 개선함에 대한 문제를 비롯한 군건설과 군사활동의 기본방향과 방도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중국의 신화통신, 로씨야의 리아노보스찌통신, 일본의 《아사히신

방송, NHK방송, 아르헨티나공산당 인터네트국제문제블레틴 《에 토다스 바르베스》와 민주공공주체사상 연구 전국위원회, 평두산제스조선전선협의회, 모프부갑조선전선협의회, 브라질선군정치연구센터 인터네트 홈페이지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조선중앙통신】



# 교원 자질 문제를 교육에 대한 당적 지도도의 기본고리로 틀어쥐자

중자는 상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최근시기 교육의 질적강화에서와우도구역이 기존 성과는 구역당위회회가 종자를 옮겨 뿌리고 당적 지도도를 심화시키는데 있다. 위 대 한 명 도 자 집 정 일 통 지 제 서 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교육사업을 개선하는데서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교원들의 자질에 의하여 교육의 질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사업은 교원진영을 강화하는 문제, 교원자질 향상문제,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는 문제,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교육중시의 사회적 기능을 확립하는 문제 등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있다.  
그 모은것이 다 중요하다. 와우도구역당위회회는 그중에서도 교원자질문제를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결정적고리로, 당적지도의 종자로 옮겨입으로써 비약적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면 구역당위회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왔는가를 보기로 하자.

이름없었다.  
백두산철새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자들과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정책으로 존중히 무장하고 교육실무지식을 풍부히 쌓기 위한 학습에 불같은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 과정에 그는 교육부본 일꾼들도 놀랄 정도의 실력자로 필수 있었으며 대외의 일정에 힘입고 나서게 되었다.  
그의 이런 실력적모범은 힘있는 정치사업이 되어 구역당책임

일꾼들과 해당 부서는 물론 조 직부와 선전선동부 지도일꾼들 속에서 실력적인 편바람을 일으켰다.  
일꾼들이 이은것만큼 지도사업의 형식과 방법이 개선되고 그 실감이 뚜렷이 확증되었다.  
그러나 지도일꾼들부터 실력자로 준비시킴이바로 구역당위회회의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의 첫 광경이 아니겠는가.

이름없었다.  
다음으로 구역안의 20여개 학교들의 교원진영을 본보기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도 큰 공을 세웠다.  
여기서 중시한것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사범대학, 교원대학원 확대상자학을 잘 선발추천하는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대상들과 중앙대학, 전봉기술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잘 배합하여 교단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그들의 중지와 열의를 높여주는 사업은 의도적으로 진행되고있다.  
한편 학생들에게 보다 깊어진 지식을 배워주어야 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범대학, 교원대학졸업생들을 위주로 하면서도 김일성종합대학, 리과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남포농업대학을 비롯한 중앙대학과 지방의 전문기술대학졸업생들도 잘 배합하여 교원대렬을 조직으로 꾸리는데도 주되는 힘을 넣었다.

이렇듯 구역당위회회는 새로운 교육강소들의 력을 비약히 강화하고 교원대렬을 전향성있게, 현실성있게 꾸리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음으로써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교원들의 자질과 학생들의 실력이 부쩍 높아졌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구역의 교육사업전면에서 전에 없던 성과들이 다채달음으로 이룩되었다.  
구역적으로 10월 8일 모범교수 500명, 새 교수방법 등록증교수 600명, 실험기구 및 교원복합인중소유자 700여명 배출, 수신행의 교원들이 중앙과 시, 구역교수경연에서 우승, 한해에 수신행의 7.15 최우등수상수상 배움, 학기, 학반마다 급우적 장성하는 최우등생대렬...

## 지도사업의 첫 공정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도를 강화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책임일꾼들, 지도일꾼들의 실력문제이다.  
아는것만큼 교육실력을 분석할 수 있고 당적 지도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  
현실한 구역당위회장이 교원자질문제의 중요성을 현실적으로 잘감히 된 계기가 있다.  
말해준 구역의 여러 중추적에 나가 학생들의 실력상태를 모태 하던 그는 생각이 깊어졌다.  
학생들의 실력이 높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그의 사무실책상에는 지난 어머태동안 구역교육사업에서 기존 성과자료들이 두드러져 있었다. 학교건설 및 개건, 교육실비의 현대화 등 거는 성과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수자들만 보아도 누구나 놀랄만 한 전례없는 성과였다.  
하지만 눈에 띄는것은 많이

달라졌는데 학생들의 실력에서 큰 변화가 없는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기서 그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찾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교원자질문제였다. 현실은 교원의 실력자 학생의 성적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 주고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구역당위회회는 교원자질 향상을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기본고리로 옮겨입고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파누는 바로 정했다고 문제가 지킬로 해결되는것은 아니었다.  
결정적인것은 책임일꾼들과 해당 부서 지도일꾼들의 실력문제였다.  
실력의 높이지자 지도사업의 실패의 높이다.  
문제를 이렇게 세운 구역당위회장은 실력적모범으로 일꾼들

을 이끌었다.  
백두산철새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자들과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정책으로 존중히 무장하고 교육실무지식을 풍부히 쌓기 위한 학습에 불같은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 과정에 그는 교육부본 일꾼들도 놀랄 정도의 실력자로 필수 있었으며 대외의 일정에 힘입고 나서게 되었다.  
그의 이런 실력적모범은 힘있는 정치사업이 되어 구역당책임

일꾼들과 해당 부서는 물론 조 직부와 선전선동부 지도일꾼들 속에서 실력적인 편바람을 일으켰다.  
일꾼들이 이은것만큼 지도사업의 형식과 방법이 개선되고 그 실감이 뚜렷이 확증되었다.  
그러나 지도일꾼들부터 실력자로 준비시킴이바로 구역당위회회의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의 첫 광경이 아니겠는가.

이름없었다.  
다음으로 구역안의 20여개 학교들의 교원진영을 본보기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도 큰 공을 세웠다.  
여기서 중시한것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사범대학, 교원대학원 확대상자학을 잘 선발추천하는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대상들과 중앙대학, 전봉기술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잘 배합하여 교단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그들의 중지와 열의를 높여주는 사업은 의도적으로 진행되고있다.  
한편 학생들에게 보다 깊어진 지식을 배워주어야 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범대학, 교원대학졸업생들을 위주로 하면서도 김일성종합대학, 리과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남포농업대학을 비롯한 중앙대학과 지방의 전문기술대학졸업생들도 잘 배합하여 교원대렬을 조직으로 꾸리는데도 주되는 힘을 넣었다.

이렇듯 구역당위회회는 새로운 교육강소들의 력을 비약히 강화하고 교원대렬을 전향성있게, 현실성있게 꾸리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음으로써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교원들의 자질과 학생들의 실력이 부쩍 높아졌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구역의 교육사업전면에서 전에 없던 성과들이 다채달음으로 이룩되었다.  
구역적으로 10월 8일 모범교수 500명, 새 교수방법 등록증교수 600명, 실험기구 및 교원복합인중소유자 700여명 배출, 수신행의 교원들이 중앙과 시, 구역교수경연에서 우승, 한해에 수신행의 7.15 최우등수상수상 배움, 학기, 학반마다 급우적 장성하는 최우등생대렬...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 방문단들 경모의 정 표시  
만수내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5일 전진성 규슈조선고급학교 교장과 조경환 이차제조조급학교 교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세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 방문단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령도민족의 무궁무진성을 위한 단란 도태를 마련해주시고도 충연

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계획의 공헌을 하신 일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말 드리었다.

## 우월한 교수방법들이 창조되기까지

선교구역 3중영예의 붉은기 불곡고급중학교에서  
머칠전 우리는 선교구역 3중영예의 붉은기 불곡고급중학교에서 당중앙위원회 4월전령의 결정관행을 위한 투쟁에 한사할같이 떨쳐나 12개 과목에서 새 교수방법을 창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목을 끌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개우취주는 교수방법을 사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올해의 첫인교원진영을 강화하고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는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사상을 받아안은 교장 김인화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학교에서는 지난해 3중영예의 붉은기학교정호를 정취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아직 교육방법에서는 전국의 모범이라고 할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었다.  
학교를 번듯하게 꾸려놓았다고 하여도 교수방법을 개선하지 못하고서는 학생들을 당에서 비라는 새세는 인제후비들로 키워낼수 없었다.  
교장을 비롯한 학교일꾼들은 발전하는 사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교수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전투를 벌일것을 결심하였다.  
그 밑바탕에는 교원들에 대한 믿음에 걸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잊지 못해 하신 《백골학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시는 뜻깊은 교정에서 교육사업을 한다는 크나큰

공지를 안고 사는 학교교원들의 정신세계는 남달랐다. 그리고 정양동무들과 정양초동무들에 수많은 작전들을 착상도입하는 과정에 창조적능력이 훨씬 높아진 이들이었다.  
일꾼들은 우선 실력있는 분과장들인 리옥경, 한광옥동무들과 교원들인 문경순, 김혜규, 조규옥동무들이 일장에서 새 교수방법창조의 불길을 지펴올리도록 하였다.  
목표는 수업용 재미있고, 알기 쉽게, 언어적으로 할수 있는 교수방법을 창조하는것이였다.  
교원들은 과학기술진보를 비롯한 수많은 단원들을 찾아다니며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현대교육발전추세에 관한 내용들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에 기초하여 방금도록 전부를 벌려 12개 과목에서 학생들의 인식능력과 창조적응용능력, 발표능력을 키워줄수 있는 새 교수방법을 창조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의 수업을 본 교육위원회 일꾼들은 교수방법이 혁신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지금도 학교일꾼들과 교원들은 모든 교수의 질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새 교수방법창조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당에서 바라는것이이라면 거기 해나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새 교수방법창조사업에 달려나와 놀라운 집단적혁신을 창조한 이들의 투쟁기풍, 창조기풍은 참으로 본받을만 한것이다.

방법이 도입된 수업용 보고 교수방법을 통해 하나하나 몸들어 다듬어주었다. 모호 하나의 교수방법을 완성하기 위해 수십차례의 교수방법회가 진행되었다.  
너날이 힘들었지만 이곳 교육자들은 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나갔었다. 한과 하나씩을 합쳐 나갔다. 결국 학교사업에서는 전진이 일어났다.  
중추의 교수안에 새 자료들을 모으고 다듬어본것을 꼭꼭 실험해본 수업준비가 끝나자 알기 쉽게, 언어적으로 할수 있는 교수방법을 창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목을 끌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개우취주는 교수방법을 사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올해의 첫인교원진영을 강화하고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는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사상을 받아안은 교장 김인화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학교에서는 지난해 3중영예의 붉은기학교정호를 정취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아직 교육방법에서는 전국의 모범이라고 할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었다.  
학교를 번듯하게 꾸려놓았다고 하여도 교수방법을 개선하지 못하고서는 학생들을 당에서 비라는 새세는 인제후비들로 키워낼수 없었다.  
교장을 비롯한 학교일꾼들은 발전하는 사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교수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전투를 벌일것을 결심하였다.  
그 밑바탕에는 교원들에 대한 믿음에 걸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잊지 못해 하신 《백골학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시는 뜻깊은 교정에서 교육사업을 한다는 크나큰

## 강령군 하부포기술고급중학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특성과 학생들의 개성에 따르는 교육용 여러가지 형태로 실습 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한해사이에서 그 면모가 달라지게 일신한 강령군 하부포기술고급중학교를 찾았다.  
학교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수신행에 대한 기초과학기 술자식을 배워주는 기술고급중학교로 전환한데 맞게 물질 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새로 꾸려진 수신행초심습실을 비롯한 실험실습실, 그 운영에 필요한 수많은 실험기구와 시약, 실험실...  
당의 교육정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철저히 집행해나가고있는 학교의 일꾼들과 교원들의 열의가 여기에 다 반영되었다.  
학교가 수신행부분의 기술고급중학교로 전환하게 되었을 때부터 김태수교장은 감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려붙었다.  
2중영예의 붉은기학교정호에 사업에서도 모범이 되자, 새로운 교풍에 맞는 실험실습실뿐만아니라 이미 있던 실험실습실들도 보다 훌륭하게 꾸렸다.  
교장의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에 학교교직원들과 여러 후원단체들도 발걸음을 맞추어나갔다.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실험실습실들을 꾸리기 위해 전 부를 빌리는 교직원들의 모범을 보면서 하부포들도 저지마다 떨쳐나섰다.  
지난 4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령회의소시에 참가교 학교의 교직원들과 학부형들, 후원단체일꾼들은 우리 당의 후대사상, 미래사상의 높은 뜻을 더욱 깊이 새겨안 내었다.  
학교에서는 기술고급중학교 교육정책에 제시된 형태별교수법을 집행한것을 비롯하여 교육교양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면서도 실험실습실 꾸리기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밀었다.  
결과 실험실습이 과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급3학년의 고수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갖추어놓게 되었다.  
이 나날 무르파다가양식사업소를 비롯한 후원단체일꾼들은 교육으로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담보해나감에 대한 당의 뜻을 실천적자극과 발걸음의 뜻에 불같은 열정을 바치었다.  
그러하여 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사업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모든 학생들을 끌모으는 선차적요 소우한 실험실의 인내로 꾸준히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가 로씨야 청년조직연합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휘동지는 25일 의예 방문하여는 그외고리 배부슈트브 로씨야정소

년원한민족리사의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청년조직연맹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박철민동지와 알렉산드르 마제코와 주조 로씨야 연방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박철민동지와 알렉산드르 마제코와 주조 로씨야 연방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 외무성에서 주요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에게 북부핵시험장폐기의식진행정형을 통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령회의 결정에 따라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이 진행될것과 관련하여 2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주요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을 위한 홍보모임이 진행되었다.  
외무성 부상들을 비롯한 해당 일꾼들이 주요 중국대사, 로씨야대사,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 라틴아메리카지역 나라대사, 림시대리대사들과 EU나라와 외교대표들, 주요 국제기구대표들을 집체 또는 개별적으로 만나 북부핵시험장폐기정형을 통보

홍보모임에서 우리측 일꾼들은 먼저 핵시험장폐기과정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홍보할수 있는 여러 가지의 특색있게 진행되고 방사성물질추출성이 전혀 없었으며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화적과정의 중추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노력과 핵무기없는 평화로운 세계, 인류의 꿈과 이상이 실현된 자유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원칙적립정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핵시험장폐기의식에 중국, 로씨야, 미국, 영국, 남조선에서 오는 31명의 국제기구나 성원들이 참가하여 핵시험장폐기과정을 두루성있게 취재하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그 밑바탕에는 교원들에 대한 믿음에 걸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잊지 못해 하신 《백골학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시는 뜻깊은 교정에서 교육사업을 한다는 크나큰

## 제10차 콘스탄잔트 요르도프브르키 국제권투 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로씨야의 하바롭스크에서 진행된 제10차 콘스탄잔트 요르도프브르키 국제권투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25일 귀국하였다.  
20여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 녀선수 160여명이 참가한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쟁취하였다.  
최철만, 최해성선수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25일 귀국하였다.  
20여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 녀선수 160여명이 참가한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쟁취하였다.  
최철만, 최해성선수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25일 귀국하였다.  
20여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 녀선수 160여명이 참가한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쟁취하였다.  
최철만, 최해성선수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기관차:리명수	기:4. 25	25체육관에서 녀자	소백수:갈매기	암록강체육관에서
리명수:제 비	6월 2일	김일성경기장에서 녀자	정 양	

## 실험실습기지들을 훌륭히 꾸려놓은 보람

평북종합대학 농업대학에서  
실험실습기지들을 우리는 사업에 당적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한사할같이 발족했다.  
이들 계기로 온 대학에 실습기지를 꾸리기 위한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대학일꾼들은 단위마다 학과들의 특성에 맞게 실습기지를 훌륭히 꾸리게 적극 꾸미어주었다. 그리고 실습기지를 위한 실험기구와 용품을 수시로 료해장악하고 총화회 평가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나감으로써 단위들로서만 경영면에서 복돋아 주었다.  
어느 한 지역에 나간 수확산학부 장학금과 교육자금을 현직당사를 한 후 장성의 학생집집 돈을 번듯하게 일떠세우고 실습기지에 많은 면적의 평탄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종류의 농사나무를 정성껏 심고 가꾸었다.  
한편 농학부에서는 많은 면적의 간석지에 10여가지 종류의 실습토전을 만들어놓고 학생들에게 땅따루기와 씨앗하기, 비료주기 등의 실습교육을 주었다. 현재농학부에서는 어느 한 곳에 실습기지를 잘 꾸려놓고 학생들이 나무부르기, 밭농부합경영법, 약초배움에 비롯한 현실

관철하고 하여도 결정적으로 그른 실험기지들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았다.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것만큼 일꾼들이 사상을 가지고 발족하지 않았고 성과를 기대할수 없었다.  
대학일꾼들은 교육자들로써 실험실습교육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단위별로 실험실습기지를 훌륭히 꾸리기 위한 경쟁을 방법론있게 조직적 개시하였다.  
최우 이 문제는 상상되었을 때 적지 않은 일꾼들속에서 어떻게 자체의 힘으로 실습기지를 꾸려놓는가 하고 묻기 시작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열린 일꾼회의에서 책임일꾼은 준엄하게 이야기하였다.  
이와 농장일꾼들은 우리 대학 경영면에서 한 2-3년간 현실에서 땅밭을 갈아야 구실을 한다고 말하는데에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과파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토산의 농장들을 때리고나갈 실험실습기지를 어떻게 훌륭히 꾸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당적정책을 철저히

실험실습기지들을 우리는 사업에 당적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한사할같이 발족했다.  
이들 계기로 온 대학에 실습기지를 꾸리기 위한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대학일꾼들은 단위마다 학과들의 특성에 맞게 실습기지를 훌륭히 꾸리게 적극 꾸미어주었다. 그리고 실습기지를 위한 실험기구와 용품을 수시로 료해장악하고 총화회 평가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나감으로써 단위들로서만 경영면에서 복돋아 주었다.  
어느 한 지역에 나간 수확산학부 장학금과 교육자금을 현직당사를 한 후 장성의 학생집집 돈을 번듯하게 일떠세우고 실습기지에 많은 면적의 평탄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종류의 농사나무를 정성껏 심고 가꾸었다.  
한편 농학부에서는 많은 면적의 간석지에 10여가지 종류의 실습토전을 만들어놓고 학생들에게 땅따루기와 씨앗하기, 비료주기 등의 실습교육을 주었다. 현재농학부에서는 어느 한 곳에 실습기지를 잘 꾸려놓고 학생들이 나무부르기, 밭농부합경영법, 약초배움에 비롯한 현실

실험실습기지들을 우리는 사업에 당적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한사할같이 발족했다.  
이들 계기로 온 대학에 실습기지를 꾸리기 위한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대학일꾼들은 단위마다 학과들의 특성에 맞게 실습기지를 훌륭히 꾸리게 적극 꾸미어주었다. 그리고 실습기지를 위한 실험기구와 용품을 수시로 료해장악하고 총화회 평가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나감으로써 단위들로서만 경영면에서 복돋아 주었다.  
어느 한 지역에 나간 수확산학부 장학금과 교육자금을 현직당사를 한 후 장성의 학생집집 돈을 번듯하게 일떠세우고 실습기지에 많은 면적의 평탄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종류의 농사나무를 정성껏 심고 가꾸었다.  
한편 농학부에서는 많은 면적의 간석지에 10여가지 종류의 실습토전을 만들어놓고 학생들에게 땅따루기와 씨앗하기, 비료주기 등의 실습교육을 주었다. 현재농학부에서는 어느 한 곳에 실습기지를 잘 꾸려놓고 학생들이 나무부르기, 밭농부합경영법, 약초배움에 비롯한 현실

실험실습기지들을 우리는 사업에 당적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한사할같이 발족했다.  
이들 계기로 온 대학에 실습기지를 꾸리기 위한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대학일꾼들은 단위마다 학과들의 특성에 맞게 실습기지를 훌륭히 꾸리게 적극 꾸미어주었다. 그리고 실습기지를 위한 실험기구와 용품을 수시로 료해장악하고 총화회 평가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나감으로써 단위들로서만 경영면에서 복돋아 주었다.  
어느 한 지역에 나간 수확산학부 장학금과 교육자금을 현직당사를 한 후 장성의 학생집집 돈을 번듯하게 일떠세우고 실습기지에 많은 면적의 평탄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종류의 농사나무를 정성껏 심고 가꾸었다.  
한편 농학부에서는 많은 면적의 간석지에 10여가지 종류의 실습토전을 만들어놓고 학생들에게 땅따루기와 씨앗하기, 비료주기 등의 실습교육을 주었다. 현재농학부에서는 어느 한 곳에 실습기지를 잘 꾸려놓고 학생들이 나무부르기, 밭농부합경영법, 약초배움에 비롯한 현실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기관차:리명수	기:4. 25	25체육관에서 녀자	소백수:갈매기	암록강체육관에서
리명수:제 비	6월 2일	김일성경기장에서 녀자	정 양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월미도:갈매기	암록강체육관에서
암록강:소백수	서산축경기장에서 녀자
봉화산:보향산	내고향녀자축선수전에서
내고향:정 양	갈매기체육관에서
갈매기:월미도	[조선중앙통신]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월미도:갈매기	암록강체육관에서
암록강:소백수	서산축경기장에서 녀자
봉화산:보향산	내고향녀자축선수전에서
내고향:정 양	갈매기체육관에서
갈매기:월미도	[조선중앙통신]



